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고찰

윤영미¹, 박혜영^{2*}

¹고신대학교 음악치료전공 박사과정, ²고신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

A Literature Review of Music Intervention Studies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ng-Mi Yoon¹, Hye-Young Park^{2*}

¹Doctoral Student, Music Therapy, Kosi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Music Therapy,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연구의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 고찰 연구이다.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학위논문 13편과 학술지 논문 6편, 총 19편을 고찰한 결과, 첫째,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 설계는 비무선 배치 실험연구와 단일 집단 사전사후 실험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3세 이하 아동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음악 중재 특성에서 목표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자기 관련 요인이 많았고, 중재활동은 노래, 악기, 창작을 혼합한 그룹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음악 중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될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심리, 음악중재연구, 문헌고찰

Abstract This study was a literature review to investigat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usic intervention studies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total of 19 researches(13 theses and 6 articles) from 2009 to 2018 was reviewed through the selection and exclusion criteria. First,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researches employing quasi-experimental design and those of one-group pre-post tests scored a higher ratio, and studie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lso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Second, about the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the goal mainly focussed on self-related factors such as self-identity, self-esteem and self-concept, and with the intervention type, there were mostly found the group activities integrating singing, playing and creating.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developing music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m, and suggesting music interven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m will be conduct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logy, Music Activities, Literature Review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Park(legendphy@kosin.ac.kr)

Received January 3, 2020

Accepted March 20, 2020

Revised February 21,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1. 서론

오늘날 세계적인 국제이주 현상으로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다양한 이유들로 모국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규모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국제결혼, 유학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1].

다문화가정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2], 넓은 의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3].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의 탄생이 한 해에 2만 쌍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1]. 2018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 학생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17년 10만 9,000명에서 2018년 12만 2,000명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다문화 학생 수의 비율은 최근 6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2.2%로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4].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다문화 학생의 수와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 학생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경험하기 쉽고[5] 이로 인한 불안, 우울, 신체화, 과잉행동과 낮은 자아개념 등의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6-9]. 또한 이중 문화에 대한 충돌과 가치관 혼란, 정체성의 혼돈과 같은 문제들은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10,11].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쳐 학습 결손,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4%, 학교 폭력 피해율은 5.0%로 나타났으며,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도 높았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학교생활이나 문화가 달라서(18.3%), 공부가 어려워서(18.0%),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적응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14].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또래관계나 학교

적응,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거나 불안, 스트레스, 우울, 행동문제 등을 측정하는 조사연구가 많았다[15]. 다문화 교육 연구의 경향과 과제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생활지도나 상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16]. 이에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보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뿐 아니라 미술심리치료, 음악치료 등의 예술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17]. 예술심리치료는 비언어적인 요소인 예술을 매체로 사용함으로써 연령이 낮거나 언어가 서툰 경우에도 이해가 용이하며,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8,19].

이 중 음악치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을 음악을 통해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20]. 또한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음악성을 통해 자존감, 정체성, 자기 수용 등 내적 자원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관계적, 문화적,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21]. 노래 중심 음악치료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불안 및 우울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었고[22,23], 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불안, 자아존중감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25]. 또한 치료적 내용과 목적을 내포한 이야기, 음악, 신체표현 등을 결합시킨 음악극 활동은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자기표현력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6].

한국으로 이주 후 문화적 배경 차이로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 등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은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적 행동 습득, 타인과의 조화 등 긍정적 사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음악 자체와 형성되는 관계에서도 긍정적 사회기술 습득이 가능하며 표현이 어려운 감정들을 드러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20]. 이에 음악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같은 사회생활의 부적응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에 안전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27,28].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음악치료 동향 분석 선행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이 선정되어 사례연구, 질적연구, 학술지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음악 중재에 대한 특성이나 대상에 따른 개입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29,30]. 이후 다문화 가족 관련 음악적 중재를 포함한 대상의 특성에 따른 동향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으나[31], 다문화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특성보다는 가족 단위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이 음악 중재를 통해 경험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지원을 살펴보는 데에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국내 음악 중재 문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연구들의 일반적 특성(연도별 현황, 대상자 유형, 연구 설계, 세션 특성 등)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적 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연구들의 중재 특성(중재 목표, 중재 방법, 중재 결과 등)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시행된 음악 중재 연구의 현황과 중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2.2 문헌검색

2.2.1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위해 음악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로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과 국내 학위논문을 포함하였다. 국내에서 시행한 음악 중재연구로 유사 실험연구를 포함한 실험연구, 단일 실험집단, 실험·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사례연구와 질적연구를 포함하였다.

2.2.2 배제 기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한 문헌은 모두 포함하였으나, 미술, 무용 등 음악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예술치료 및 음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 및 언어영역만을 목표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또한 중재를 실시하지 않은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는 제외하였으며, 부모와 함께 중재를 시행한 연구와 미취학 아동인 유아 대상 연구는 제외하였다.

2.2.3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어

검색에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 국회도서관(nanet), 학술 데이터(DBpia), SCHOLAR, Google 학술 검색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 '심리', '음악', 등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였고, 검색한 후 초록 및 내용 확인을 통해 선별하였다.

2.2.4 문헌 선정 과정

검색 자료의 기간은 보다 광범위한 검색을 위해 출판 연도의 시작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자료 검색을 실시한 시점인 2019년 6월까지 발표된 국내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문헌 선정을 위해 먼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문헌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엑셀 프로그램(Microsoft Excel, 2016)을 이용하여 중복 문헌을 확인하고 제거하였다. 선정된 문헌들은 1차적으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제목이나 초록만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된 문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문을 참조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하였다. 검색된 자료는 RISS 47편, SCHOLAR 4편, DBpia 4편으로 총 65편이었으며, 중복된 연구를 제거하고 55편의 연구를 선별하였다. 이 중 연구 대상 및 방법의 부적합 연구 35편을 배제하였고, 원문 확인 불가 연구 1편을 배제하여 총 1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논문 선정 과정에 대한 흐름도는 Fig. 1과 같다.

2.3 자료분석

연구자 2인은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19편의 논문을 문헌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상호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고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논문의 재검토 및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문헌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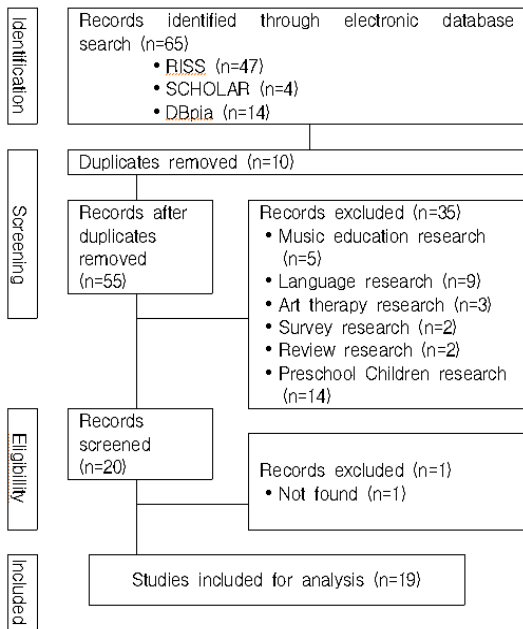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article selection

선택된 문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은 선행연구 [19]를 토대로 저자, 발행연도, 연구 설계, 참여자 나이와 인원, 중재 장소와 기간, 게재 유형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중재 특성에 따른 분석은 프로그램 내용, 목표, 측정도구 및 연구결과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세부 중재 목표 영역의 분석 준거는 Grosse & Grawe(2002)의 분류틀[32]을 참고한 이성경과 김지혜(2018)의 연구[33]를 토대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심리 관련 영역, 자기 관련 영역, 관계 관련 영역의 3개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윤미와 최희승(2018)의 연구[19]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지표를 토대로 분류한 것을 참고로 하여 적응 관련 영역을 추가하여 4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하위 항목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goal area

Category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
Psychological	Focus on psychological difficulties, which effects emotions and behaviors,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stress	Lee, Kim (2018) Lee, Choi (2018)
Self	Focus on self-growth and self-awareness,	Grosse &

	including self-esteem, self-concept, ego-identity, self-expression, and empowerment	Grawe (2002)
Relational	Focus on relational and social difficulties, including relational issues, interpersonal relation, social skill, self-efficacy	
Adaptational	Focus on adaptation, including cultural adaptation stress, bicultural stress, school adaptability and flexibility	

3. 연구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국내 음악 중재 연구의 현황과 중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문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연도별 출판 동향은 2009년 1편, 2010년 3편, 2013년, 2014년에는 각각 1편씩, 총 2편으로 2009년도에서 2014년까지는 매년 1-2편의 문헌이 발표되었으며, 2016년 5편, 2017년 6편, 2018년 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대상자별 나이로는 13세 이하인 아동 대상이 14편, 14세 이상의 청소년 대상이 5편으로 아동 대상의 연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설계를 살펴보면, 무선 배치 실험연구가 3편, 비무선 배치 대조군 실험연구가 7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8편, 단일 사례연구가 1편이었다.

프로그램이 실시된 중재 장소로는 지역아동센터가 4편, 다문화 센터 및 외국인 근로자 회관이 4편, 이주민 여성 상담소 1편, 복지관 1편, 학교가 9편으로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를 포함한 학교가 가장 많았다. 부모 국적으로는 어머니의 국적이 아시아(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가 11편, 북한이 6편, 미기재 2편으로 아시아가 많았다. 음악치료 세션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수는 1-5명 6편, 6-10명 7편, 11-15명 3편, 16명 이상이 3편으로 10명 이하의 인원이 많았고, 게재 유형으로는 석사논문이 12편, 박사논문 1편, 학술지 게재 문헌이 6편으로 확인되었다. 중재 기간은 10회기 2편, 12회기-14회기가 17편으로 대부분 12회기 이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회기 당 세션 소요시간은 30분 이하가 2편, 31분-59분이 14편, 60분 이상이 3편으로, 60분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중재 형태로는 개별 형태 2편을 제외한 17편이 모두 그룹 형태로 이루어졌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9)

Author (year)	Study design	Participants				Session information					Type of article
		Parent's nationality	N			Age	Type	Place	Tot.ses sion	Length (min)	
			Ex	Con	Tot						
Chung (2009)	One group pre-post	North Korean	4	-	4	9,10,13	In	Community Child Center	14	40	Published Journal
Jung (2010)	Non-randomize controlled trial	Mix (North Korean)	8	8	16	Children	Gr	Multicultural Center	12	60	Master's thesis
Kwon (2010)	One group pre-post	Japan, Philippines	3	-	3	10	Gr	Migrant Women Counseling Center	14	40	Master's thesis
Kim (2010)	One group pre-post	Philippines	3	-	3	10	Gr	Workers Center	12	40	Master's thesis
Kim (2013)	One group pre-post	Japan, China	3	-	3	10-13	Gr	School	12	40	Master's thesis
Hwang (2014)	One group pre-post	Not reported	18	-	18	8-13	Gr	School	12	50	Master's thesis
Kim. (2016)	Non-randomize controlled trial	Philippines, Vietnam, China	7	7	14	9-12	Gr	Community Child Center	12	40	Master's thesis
Oh, Hwang, Jun (2016)	Non-randomize controlled trial	Not reported	7	9	16	8-11	Gr	Foreign Workers Center	12	50	Published Journal
Yoo (2016)	One group pre-post	Mongolia	22	-	22	13-15	Gr	School	12	40	Master's thesis
Yoon, Kang (2016)	Non-randomize controlled trial	Vietnam, China	5	5	10	Children	Gr	School	14	40	Published Journal
Kim (2016)	One case study	Vietnam	1	-	1	8	In	Community Child Center	12	30	Master's thesis
Lee (2017)	Non-randomize controlled trial	North Korean	26	24	50	Adolescent	Gr	Alternative school	12	90	Doctoral dissertation
Lee (2017)	Non-randomize controlled trial	North Korean	8	8	16	12-16	Gr	School	13	45	Master's thesis
Jang (2017)	Randomize controlled trial	Vietnam, China, Russia, Philippines	8	8	16	9-11	Gr	Multi-cultural Children Center	10	40	Master's thesis
Hong, Son (2017)	Randomize controlled trial	Mongolia	10	10	20	Adolescent	Gr	School	12	45	Published Journal
Chung (2017)	One group pre-post	North Korean, China	14	-	14	13-18	Gr	Alternative school	10	90	Master's thesis
Sung, Kim (2017)	Randomize controlled trial	Vietnam, China, Philippines, Cambodia, Japan, Thailand	11	11	22	8-11	Gr	Welfare center	14	30	Published Journal
Kim, Moon (2018)	Non-randomize controlled trial	North Korean	9	9	18	10-12	Gr	Alternative school	12	40	Published Journal
Kim (2018)	One group pre-post	Vietnam, Cambodia, Philippines	14	-	14	9-12	Gr	Community Child Center	16	50	Master's thesis

Notes. Ex: experimental, Con: control, In: individual, Gr: group, Tot: Total

3.2 문헌의 중재 특성에 따른 분석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음악 중재 연구를 중재 목표에 따라 심리 관련, 자기 관련, 관계 관련, 적응 관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자아성장,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임파워먼트 및 자기 인식을 포함함 자기 관련 요인을 치료 목표로 하여 진행된 연구

가 13편으로 가장 많았다. 불안, 두려움, 충동, 우울 등 심리 관련 요인을 치료 목표로 한 연구가 5편,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등의 관계 관련 요인을 치료 목표로 한 연구가 5편,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력 등의 적응 관련 요인을 치료 목표로 한 연구가 6편이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요인을 목표로 설정한 연구가 많았는데 자아

Table 3. Classification of Music Intervention Goal

Category	Goal (Target area)	Research	N
Psychological	Anxiety Depression Emotion	Kim(2016), Yoo(2016) Oh, Hwang, Jun(2016) Lee(2017), Lee(2017)	5
Self	Self-esteem Self-concept Ego-identity Self-expression Empowerment	Jung(2010), Kim(2010) Kim(2013) Hwang(2014) Oh, Hwang, Jun(2016) Yoon, Kang(2016) Kim(2016), Lee(2017) Jang(2017) Hong, Son(2017) Sung, Kim(2017) Chung(2017) Kim(2018)	13
Relational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relation Sociality -improvement	Jung(2010) Kwon(2010) Lee(2017) Hong, Son(2017) Sung, Kim(2017)	5
Adaptational	Acculturative -stress, Bicultural -stress, School -adaptation	Chung(2009) Hwang(2014) Yoon, Kang(2016) Yoo(2016) Jang(2017) Kim, Moon(2018)	6

* Doubly counted

존중과 이중 문화 스트레스 관련 2편, 자아존중과 학교 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과 사회성, 자아존중과 대인관계 관련 각 1편씩으로 중복 목표 영역에서도 자기 관련 목표가 많았다. 자아개념과 우울, 자기표현과 사회성, 사회적 지지와 불안, 정서와 임파워먼트 관련 영역의 2가지 이상 요인 목표로 설정한 연구가 각 1편이었다.

중재 결과로는 Table 4와 같이 심리 관련 영역에서는 불안 및 우울 감소, 정서발달을 목표로 한국 동요, 악기 연주, 노래 활동 등의 음악 중재를 시행한 후, 다문화 가정 아동의 불안 감소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22,34], 불안 하위 요인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고[24], 우울 점수 감소[23] 및 탈북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유의미한 향상($p < .001$)을 보였다[35].

자기관련 영역에서는 전래동요, 음악극, 복연주 등의 음악 중재 이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자기표현력이 유의미하게 향상($p < .05$) 되었다[23,26,36-41], 음악 중재 이후 전체 자아개념 점수는 증가하였으나 하위 영역 중 언어 자아개념, 수학 자아개념, 일반 교과 자아개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3]. 또한 노래 심리치료, 톤차임, 오르프를 활용한 음악중재 시행 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임파워먼트가 유의하게 향상($p < .05$) 되었다[25,35,42,44].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총체적, 학교 내 자아존

중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2].

관계 영역에서는 타악기, 톤차임, 음악극 등 다양한 음악 중재를 통해 사회성,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으며, 사회성 하위 요인 중 준법성,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 등이 상승하였으나 자주성 점수의 향상 폭은 다른 요인에 비해 적었다[24-26,44]. 또한 행동 관찰에서도 긍정적 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부정적 사회적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45].

적응영역에서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 적응력 등의 목표로 노래 심리치료, 전래동요, 오르프 음악치료, 창작 음악극, 타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음악 중재를 시행한 결과, 새터민 아동 및 다문화 아동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34,38,42,46], 학교생활 적응력 점수의 증가를 보였으나($p < .05$) 하위 영역 중 학교 규범 준수, 학교 수업 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3,47].

2가지 이상의 요인을 목표로 설정한 연구 중 이중 문화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8,42],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학교 적응 유연성, 대인관계가 함께 증가하였으며[25,43,44], 음악극 중재를 통해 자기표현과 사회성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 < .05$)[26]. 또한 타악기 중심의 음악 중재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34].

측정도구로는 자기 관련 영역에서 자아존중감 척도, 자기표현 평정 척도, 자아개념 진단 검사, 임파워먼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심리 관련 영역에서는 불안 척도, 우울 척도, 정서 발달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사회성 척도가 사용되었고, 적응 관련 영역에서는 문화 적응 스트레스, 학교 적응 유연성 척도, 학교생활 적응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36,37,39,45,46].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문헌에서 중재 전후로 결과 변수를 측정하였고,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후 검사를 한 문헌은 1편이었다[37].

음악 중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래 활동으로는 전래동요, 한국 동요 부르기, 기존 노래의 가사 내용을 그룹원과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사 토의, 기존 곡의 가사 일부 또는 전체를 개사하거나 재구성하여 색다른 노래를 만드는 송라이팅 활동을 하였다[22,38,42,46]. 악기 연주활동으로는 구조화된 악기 연주로 톤차임 등의 유희 악기로 가락, 화음 연주하기 및 리듬악기로 규칙에 따라 연주하

는 활동과 드럼서클, 난타 연주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구조 없이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즉흥 연주활동을 하기도 하였다[24,25,34,41]. 창작활동으로는 가사 만들기 및 작곡을 함께 하는 노래 만들기 활동과 기존의 여러 동화를 개사하거나 새로운 멜로디를 만드는 음악극 만들

기 활동을 하였다[26,36,39,47]. 또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혼합하여 사용한 연구가 7편[23,35,37,40,43,44,45]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4. Music Intervention Characteristics

(n=19)

Author(year)	Program	Goal	Measurement	Results
Chung (2009)	Song Psychotherapy	Acculturative stress	ASSIS, Observation	Reduction in acculturative stress
Jung (2010)	Mixed (Song, instrument, music drama, etc.)	Sociality, self-esteem	SSRS, SEI	Improvement in sociality and self-esteem
Kwon (2010)	Mixed (Song, instrument, music drama, etc.)	Sociability,	Sociality Test Tool Observation	Improvement in sociability
Kim (2010)	Mixed (Song, instrument, music drama, etc.)	Lingual & emotional Self-expression	PRES	Improvement in lingual and emotional Self-expression
Kim (2013)	Creative music therapy (music drama)	Self-expression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scale, Self-esteem scale Observation	Improvement in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Hwang (2014)	Song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	Bicultural stress, Ego-identity,	SAFE, Ego Identity scale	Reduction in bicultural stress, Improvement in ego-identity
Kim. (2016)	Song (korean children's song)	Anxiety	RCMAS	Reduction in anxiety
Oh, Hwang, Jun (2016)	Mixed (Song, instrument, listening)	Self-concept Depression	SCI, CDI	Improvement in self-concept Reduction in depression
Yoo (2016)	Instrument (Percussio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xiety	ASSIS, State-anxiety scale	Improvement in cultural adaptation stress Reduction in anxiety
Yoon, Kang (2016)	Song Psychotherapy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ASSIS, SEI	Reduction in acculturation stress, Improvement in self-esteem
Kim (2016)	Mixed (Song, instrument)	Self-expression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scale, SEI, Observation	Improvement in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Lee (2017)	Mixed (Song, instrument, creating)	Emotional development, empowerment	Emotional -development scale, Empowerment Scale	Improvement in emotional development and empowerment
Lee (2017)	Instrument (percussion)	Social support anxiety,	Social support scale, STAI	Improvement in social support score Reduction in anxiety
Jang (2017)	Mixed (off music))	Self-esteem School Resilience	SEI, School-adaptability scale	Improvement in self-esteem, school resilience(p<.05)
Hong, Son (2017)	Instrument (Tone chime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	SEI, KIIP-SC	Improvement in self-esteem(p<.05), Interpersonal relation(p<.01)
Chung (2017)	Instrument (Drum)	Self-efficacy	GSES	Increase self-efficacy
Sung, Kim (2017)	Creative music therapy (music drama)	Self-expression Social skill	Self-assertiveness scale, personality scale	Improvement in self-expression, social skill
Kim, Moon (2018)	Creative music therapy (music drama)	School adaptation	School adeptability scale	Improvement in School adaptation
Kim (2018)	Creative music therapy (music drama)	Self-esteem	SEI, Observation	Improvement in self-esteem

Note. ASSIS: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nal student, SSRS: social skill rating system, SEI: self-esteem inventor, PRES: 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SAF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Adolescents, RCMAS: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SCI: Self Concept Inventory, 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KIIP-SC: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GSES: general self-efficacy scale

4. 논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문헌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심리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웹 기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총 65편의 관련 문헌을 검색하였고, 문헌 선정 및 배제 기준을 적용하여 학위논문 13편과 학술지 논문 6편, 최종 19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연도별 현황에서 2009년부터 매년 1편씩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의 현실과 2015년 이후 급격한 수적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설계로는 최종 19편 중 3편만이 무선 배치 실험연구 설계였고, 비무선 배치 실험연구가 7편, 단일 집단 사전사후 실험연구가 8편, 단일 사례연구가 1편이었다. 음악 중재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무선 배치 실험연구 설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엄격한 실험연구 디자인을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 검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음악 중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수는 1-26명까지 다양하였으나 5명 이하가 6편, 6-10명이 7편으로, 10명 이하의 그룹 형태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대상자 모집이 어렵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개인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세밀한 관찰의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37,46].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작아 중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여 다양한 표집 범위와 크기 확대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36].

대상자별 나이로는 13세 이하인 아동 대상이 청소년 대상 연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재 기간은 12회기 이상이 대부분으로 초등학교생의 정서 변인 효과 메타 연구에서 음악치료 회기 수에 대한 효과 크기에서 11-14회

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48]. 중재가 시행된 장소로는 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학생 중 아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49]. 그러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통한 학교 중단, 탈선 등 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중재의 장소와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중재 특성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측정도구로는 자아 관련 측정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 측정 도구와 함께 치료사의 행동 관찰을 기록하여 평가한 연구가 4편으로 질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개별적인 목표와 세밀한 관찰의 필요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더 활발히 시행될 것을 기대한다[50]. 이와 더불어 후속 검사 등을 포함한 추적연구를 통해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중재 목표와 결과는 자기관련 영역 연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정체감 등 자기관련 요소가 심리적 기능의 중심적인 측면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1,52].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 중 가정적, 학교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아탐색 및 긍정적 정서 확립에 초점을 둔 단기간의 진행으로 집단 중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가정, 학업 및 학교에서의 유능감 등 개인적 문제 개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사전보다는 사후 점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장기적인 활동 구성, 가정과 연계한 부모와 함께 중재를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음악적 환경을 구성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중복 변인 목표 연구가 많아 심리, 자기, 관계, 적응 영역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더 잘 활용한 음악 중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음악 활용 중재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혼합적으로 사용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그중 노래 활동과 음악극 만들기를 포함한 창작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노래 가사를 통해 내면 탐색과 자기 인식 및 수용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고, 음악극을 통한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투사, 내면화, 표현 촉진을 도울 뿐 아니라,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된 음악극을 발표하는 것이 사회성, 성취감 및 자신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9]. 이에,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음악 중재에서 음악극이 가지는 유용성을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방안의 마련 및 중재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 설계는 비무선 배치 실험연구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실험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3세 이하 아동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음악 중재 특성에서 목표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자기 관련 요인이 많았고, 중재활동은 노래, 악기, 창작을 혼합한 그룹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위논문과 전문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음악 관련 학술논문들을 분석하였는데, 학위논문이 13편으로 등재학술지 논문 6편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엄격한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과한 전문 학술지의 논문 게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심리지원 음악 중재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연구만을 검색하였으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다문화 자원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이룬 나라들을 중심으로 국외 문헌 검색을 통해 더 다양한 음악 중재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관련 문헌 검색 과정에서 중도입국 학생, 학교 중단 학생 등의 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음악 중재에서 참여자들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매체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된 19편의 문헌에서 사용된 중재 음악은 모두 국내 음악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자국 언어로 된 노래 활용

등 문화적인 상황이 반영된 음악 중재를 통해 음악 안에서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Kim, Y. S. Kim, R. H. Kim, & J. H. Choi. (2018). multicultural population dynamic statistics. Statistics Korea News [Internet]. 2018 November 16:1-45.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8479
- [2] Multicultural Family Law. (201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50&efYd=20180613&ancYnChk=0#0000>
- [3]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14). Multicultural Famil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ridx=0&tot=2>
- [4]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 2018' Basic education statistics. https://kess.kedi.re.kr/post/6670508?code=&words=&since=&until=&page=1&itemCode=04&menuId=m_02_04_02
- [5] N. Y. Seon. (2013). *The effects of the social exclus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n their school adjustment*. Kyongg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6] G. J. Kim. (2008). *Psychologic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Master Thesis.
- [7] J. H. Park, J. S. Nam. (2010).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Studies on Korean Youth*, 21(2), 129-152. UCI : G704-001385.2010.21.2.003
- [8] Hyong-Sil Lee.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2), 175-183. DOI : 10.22156/CS4SMB.2019.9.12.175
- [9] S. H. Lee. (2011). *The status and perceptions of mental health in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Hanyang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10] S. H. Park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125-154. UCI : G704-000946.2009..29.003
- [11] D. J. Park. (2019). An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9), 175-184.
DOI : 10.22156/CS4SMB.2019.9.9.175
- [12] S. H. Park, S. J. An. (2014). *Education Welfare: Issues, Challenges and Prospects*. Seoul : Park Young Story
- [1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2018). Multicultural Family Status Survey. [Accepted June 28, 2018]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137>.
- [14] M. O. Chae, A. Kim & H. O. Jeon. (2018). Related factors of problem behaviors among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614-626.
DOI : 10.5762/KAIS.2018.19.12.614
- [15] M. J. YEOM. (2011).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ildren mental health in multi-cultural families*. Catholic University, Master Thesis.
- [16] M. H. Kim. (2010). Critical review on the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Learner Center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1), 61-86.
UCI : G704-001586.2010.10.1.016
- [17] S. W. Byun, S. H. Kim & S. H. Park. (2017).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applied to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277-285.
DOI : 10.14400/jdc.2017.15.1.277
- [18] E. Y. Kim, M. S. Kim & H. Y. Huang. (2015). An Analysis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1(5), 145-177.
DOI : i.org/10.24159/joec.2015.21.5.145
- [19] Y. M. Lee, H. S. Choi. (2018). Systematic review of mental health interventions designed for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outh Korea.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7(2), 159-169.
DOI : 10.12934/jkpmhn.2018.27.2.159
- [20] H. J. Chong.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21] H. J. No, H. Y. Park. (2019).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activities on acculturation stress of migrant worker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30(1), 63-83.
- [22] Y. Kim. (2016). *Effects of music therapy with Korean children's song on the anxiety of multicultural children*. Kosin University. Master Thesis.
- [23] S. H. Oh, E. Y. Hwang & Y. M. Jun. (2016).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music activities on reduction of depression and change of self-concep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2(3), 203-225.
UCI : G704-SER000010492.2016.12.3.002
- [24] K. Y. Lee. (2017). *The effects of percussion playing-based music therapy on anxiety and social support among defected North Korean adolescent*. Myongji University. Master Thesis.
- [25] M. J. Hong, J. Y. Son. (2017). The effect of music therapy using tone chimes on th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2(3), 133-155.
- [26] H. N. Sung, Y. S. Kim. (2017). The effects of creating music drama in music therapy settings on improving self-expression and social skill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2(4), 311-334.
- [27] S. Y. Han, J. H. Yhi, J. M. Chae, M. J. Keum, & Y. Y. Lee. (2007). A program for enhancing the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terpersonal abilities and accultural abiliti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2), 33-54.
UCI : G704-000654.2007.13.2.002
- [28] A. Y. Kim, S. I. Kim. (2011). Comparisons of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between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from gene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4), 853~873.
UCI : G704-000199.2011.25.4.004
- [29] Y. S. Kim, M. H. Ko & J. E. Park. (2011). An analysis of music therapy case stud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2(3), 13-38.
DOI : 10.21330/kjmt.2011.13.3.13
- [30] H. A. Cho. (2013). *Analysis of music therapy research in professional journals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 [31] M. J. Park. (2014). *Research trends Analysis of music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 [32] Grosse, M., & Grawe, K.(2002). Bern inventory of treatment goals: Part 1. development and first application of a taxonomy of treatment goal themes. *Psychotherapy Research*, 12(1), 79-99
DOI : org/10.1080/713869618
- [33] S. K. Lee, J. H. Kim. (2018). Music intervention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Korean women: research analysis focusing on a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5(1), 69-94.
DOI : 10.21187/jmhbb.2018.15.1.069
- [34] J. A. Yoo. (2016). *The effects of percussion based music therapy on anxiety and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mong mongolian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Myongji university. Master Thesis.
- [35] E. S. Lee. (2017). *The effect of music therapy on empowering and improving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 North Korean refuge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36] H. J. Kim. (2018). *Teaching-learning methods of making a music drama for improving self-esteem to*

- multicultural children*. Cho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 [37] S. Kim. (2016). *Effects of individual music therapy on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behaviors in a child from a multicultural family : A single subject case study*. Jeonju University. Master Thesis.
- [38] H. J. Hwang. (2014).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centered music therapy on bicultural stress and ego identity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sin University. Master Thesis.
- [39] S. J. Kim. (2013). *The effect of making musical play experience to the multicultural children's self-expression and self-esteem*. Inje University. Master Thesis.
- [40] E. S. Kim. (2010).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on improving lingual and emotional self-express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 [41] K. H. Chung. (2017). *A study on the self-efficacy effect of north Korean escapee students using drum*. Chung-ang university. Master Thesis.
- [42] S. Y. Yoon, K. S. Kang. (2016). The effects of song psychotherapy on the acculturation stress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ilot study.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8(2), 119-138.
DOI : 10.21330/kjmt.2016.18.2.119
- [43] Y. J. Jang. (2017). *The effects of Orff music therapy on the self-esteem and school resilience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 [44] T. M. Jung. (2010).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activities on their sociality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nsei University. Master Thesis.
- [45] Y. J. Kwon. (2010).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program on improving sociability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oonchunhyang University. Master Thesis.
- [46] H. C. Chung. (2009). Music psychotherapy program on acculturative stress for North Korean child defector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Education*, 6(1), 1-31.
- [47] S. Kim, S. Y. Moon. (2018). The effect of creative musical-based music therapy on school adapt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born in a third country.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21, 279-299.
DOI : 10.20976/kjas.2018..21.012
- [48] E. H. Back. (2015). *The effect of music therapy program on emotion-related variables for children: a meta-analy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 [49] I. S. Jang. (2015).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delinquency factors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structur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 Diaspora Studies*, 7, 1-39.
- [50] J. Y. Song. (2019). An qualitative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699-724.
DOI : 10.24159/joec.2019.25.1.699
- [51] E. G. Kim, J. N. Kim.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9(4), 21-43.
DOI : 10.14328/MES.2016.12.31.21
- [52] S. H. Lee, K. S. An. (2017).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Self-Accept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471-484.
DOI : org/10.14400/JDC.2017.15.1.471

윤 영 미(Young-Mi Yoon)

[정회원]



- 1991년 2월 : 신라대학교 음악과 학사
- 2016년 8월 : 고신대학교 음악치료학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전공 박사수료
- 관심분야 : 노인, 자아통합, 세대통합, 음악중재

· E-Mail : neobomoon@naver.com

박 혜 영(Hye-Young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음악치료교육) 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음악치료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감각장애, 음악정서, 음악중재

· E-Mail : legendphy@kosin.ac.kr